KR 상생뉴스

'안전한 철도' 위해 공공기관장들 힘 모으다!

- 공단, 코레일,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련 공동업무 협약 체결 -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22일 본사 21층 상황실에서 안전한 철도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기획단장(단장 박상열)이 배석하고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안전관련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발전방안 ▲철도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비상대응훈련 합동 시행 ▲공동교육과 홍보를 통한 철도 안전문화 제고 ▲종합시운전 합동 시행으로 신노선 및 철도개량 시 안정성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목표에 세 기관장의 뜻을 모았다.

그 동안에도 3개 기관은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철도인접공사 점검을 합동으로 시행했으며 최근까지 5회에 걸쳐 54개 현장점검을 통해 106건을 시정조치했고 18차례의 품질안전 관련 합동교육도 실시했다.

강 이사장은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Rail Network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북경~심양간 고속철도 감리사업 수주

-중국에서 13번째 수주, 35억원 규모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지난달 30일 중국의 수도 북경을 출발해 동북지역 중심 도시인 심양까지를 잇는 경심고속철도(698km) 요녕구간 제3공구(劉家臥鋪특대교 ~ 上河首대교 간 약 78km) 시공감리 용역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지난 7일 약 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경심고속철도는 정부 재정사업(철로총공사89%, 요녕성정부11%)으로 향후 전 구간 개통 시 동북부 치치하얼에서부터 중국의 심장 북경을 경유해 동남부 광주에 이르는 동부 종단 고속철도(약 38000여km)로 이어지게 된다.

본부는 사업 수주를 위해 중국 현지 유력업체와 한 · 중 연합체를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하기까지 지난 한 달간 숨 가쁘게 움직였고 그 결과 독일, 프랑스, 이태리 업체 등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마침내 중국에서 13번째 사업계약을 수주함으로써 한국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단은 2005년 수녕~중경간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시험선 감리 자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심고속철도를 비롯한 총 13개 사업(총 연장 약 3,900km)을 수주해 무한~광주간, 하얼빈~대련간 고속철도 등 7개 사업의 감리 및 품질 자문 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중국 철도관계자와 발주처로부터 용역수행 성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심고속철도 발주사업 수주를 계기로 이후 발주예정인 중국 고속철도 사업에도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중국 철도사업 수주 현황

사업명	현 황
수투선	'07. 1 개통
무광선	'09.12 개통
하다선	'12.12 개통
반영선	'13. 9 개통
진진선	'13.12 개통
서보선	'13.12 개통
정은 귀주선	'10. 9~'14. 9
우은 운남선	'10. 9~'16. 2
정서선	'13. 1~'17. 1
란신 신강선	'10. 5~'14. 6
란신 감청선	'10. 5~'14. 8
하치선	'10. 5~'15. 6
경심선	'14. 8~'17. 4
총 13개 사업 (완료 6, 수행 7)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적극 기여

-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100.3% 달성, 6127억원 예산까지 절감 -

기획재무본부는 2014년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3차례나 상향 조정(55.2% 57.2% 59.7%)한 결과, '14년 예산 7조 2,061억원 중 상반기에만 4조 3,146억원(59.9%)을 집행하는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동안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책임담당자를 지정, 매주 간부회의 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조기집행을 독려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매일 보고를 통해 부진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등 전 직원이 전 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철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안전에 대한 고삐도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에 치우쳐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감을 고려해 올해만 철도안전, 재해예방,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에 올 상반기만 총 7265억원을 집행했으며, 올 하반기까지 총 1조 40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14년 시설개량비(3173억원)+유지보수비(7228억원) = 1조 401억원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축적된 설계VE 및 설계심사 노하우와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해 품질 및 안전은 개선하고, 예산낭비 요인은 제거하여 올상반기에만 612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성과도 올렸다.

* 설계VE(Value Engineering) : 설계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대안 창출

본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최근 세월호 사건 등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고 철도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인선 소사역 복합업무시설 본격 개발 추진

- 개발사업자로 (주)삼우 선정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부지의 활용가치가 높고 개발입지가 양호한 경인선 소사역(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95번지 일원, 28,266㎡)에 복합업무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지난 7일 ㈜삼우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관자후보자로 선정했다.

소사역 복합업무시설은 지상 10층, 연면적 66,098㎡의 규모로 역무, 문화 · 집회, 의료, 운동, 근린시설을 갖춘 지역 커뮤니티의 핵심공간으로 조성된다.

본부는 앞으로 사업주관자후보자로 선정된 ㈜삼우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사업 추진으로 철도부지 사용료 등 약 1451억원의 수익창출과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부천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지역으로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1회 철도건설 사진공모전 개최

-8월29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홍보실(실장 신철수)은 사진에 관심있는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제1회 철도건설 사진공모전'을 8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의 '알림판' 혹은 '공단소개-KR 홍보실'에 출품신청서와 사진작품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그 중 50여편을 선정해 일정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전 요강 및 출품신청서 등 공모전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블로그(http://blog.naver.com/ kr_blog), 트위터(https://twitter.com/KR_network) 및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Rw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철도시설물, 철도건설 현장과 땀, 열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사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철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와 노력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사진공모전 응모기간동안 수도권 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등 주요 건설현장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팽소 접하기 어려웠던 철도건설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으며 사진촬영도 가능하다.

공모전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와 블로그(http://blog.naver.com/ kr_blog)를 통해 9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별도로 공지할 계획으로 선정된 작품은 공단 사보, 달력, 블로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함께 비리요인 제거 위해 손잡다!

- 철도산업 신뢰회복, 불공정 관행철폐, 비리 근절 위해 토론회 개최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24일 본사 사옥에서 철도건설 분야 협력업체 관계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마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단에서 시행 중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비리근절과 규제개선 및 철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甲과 乙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뜻 깊은 자리였다.

특히 철도건설을 둘러싼 대내외 주요 이슈사항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본 바로세우기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상생 추구 ▲담합 등 입찰비리 방지 및 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업계 신뢰회복 ▲각종 오해불식 및 건설품질 확보를 통한 철도산업분야 신뢰회복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또 토론 중에는 건설업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에서 설계 시 '실적단가 적용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협력사의 건의사항이 많았고 시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와 협력사 모두 힘을 모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때"라며 "앞으로 공단과 함께 불공정 관행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 관계자는 "철도산업의 적폐해소를 위해 감리 등 용역사 및 철도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수시로 갖고 비리 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등 현실타계 방안을 협력업체와 함께 적극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협력사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다!

- 불공정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실태 특별점검 시행 -

기획재무본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전국 281개 철도건설 현장 중 하도급 협력사가 있는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대적인 하도급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하도급계약의 부당특약, 대금 지연지급,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등 총 12개 분야에서 39건의 불공정한 사례를 찾아내 시정 조치했으며 점검 중 미처 찾아내지 못한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본부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 포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해소센터'를 본사 및 5개지역본부에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불공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내부 신고자까지 확대해 시행 중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추석 전에도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대금 체불을 근절시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설장비사무소, 농기계 수리 봉사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 시설장비사무소 KR봉사단은 지난 16, 17일 이틀에 걸쳐 일사일촌을 맺은 청원군 가덕면 상한1리 마을(이장 유대현)을 찾아 농기계 수리 및 청렴 캠페인 운동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기계장비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로 구성돼 경운기, 트랙터, 농업관리기 등 수리가 필요한 장비를 수리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모품, 엔진오일 필터 등을 무상으로 교체하고 농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수리방법과 보관방법, 농기계 사용 시 안전예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삼항리 마을 신모 어르신은 "바쁜 농사철에 갖은 고장으로 답답하였는데 이렇게 말끔히 수리해 올해 농사는 걱정 없다"며 농사 풍년을 기원하는 뜻있는 선물이라며 환한 표정을 보였다. 또 유 이장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이번 봉사활동이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봉사활동 참여자는 "매년 펼치고 있는 봉사활동이지만 갈수록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감소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지만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장비사무소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경영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신호/통신분야 상생발전 위해 제도개선 시행

- 협력사와 함께 규제개혁, 윤리경영, 설계품질 향상 노력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철도신호와 통신분야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하고 철도건설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담은 18건의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제는 지난달 27일 공단과 철도신호 및 통신분야 협력사 직원이 함께한 상생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규제개혁, 윤리경영 및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도건설과 운영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계협의체' 운영으로 건설 후 인수인계 어려움 해소 ▲협력사의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는 공단의 연간 발주계획 및 최근 조달청의 실거래가 공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주요 설비 구매와 발주 시 국내 중소기업 및 전문업체가 참여토록 제도개선 등이다.

본부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많은 철도신호 및 통신분야 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장과 협력사 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협력사와 수평적 상생협력 관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인근 급경사지 '특별안전점검' 완료!

- 우기 대비 점검결과 취약한 26개소는 안전조치 시행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철도운행선상의 급경사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우기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2086개소의 급경사지 중 D, E등급(재해위험도가 높아 붕괴위험이 있는 곳)은 없음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C등급은 152개소임을 확인했다.

등급분류 기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소방방재청)

등급	내용
A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미비함
B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C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D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E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특히 C등급 152개소 중 안전점검결과 재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26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까지 배수로 정비, 경사로 면정리 작업, 노반 비탈면 정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경사지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